AI 제작 숏드라마 '저작권 인정'의 의미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생성형 AI로 대본부터 영상·음향까지 제작하는 이른바 'AI 숏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작비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무단 복제도 손쉬워져 AI로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업계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사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47부작(총 약 1시간) 숏드라마를 B사가 제목만 바꾸어 통째로 복제한 뒤 광고 수익을 올린 사안이었다. 중국 우한시 장안구 인민법원은 영상과 음향은 AI로 만들어졌지만 대본 기획, 프롬프트 설정, 생성 영상의 선별·편집 등에 인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적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보아 해당 숏드라마를 시청각저작물로 인정했다. 나아가 법원은 2만 위안(약 4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토큰 소모에 따른 연산 비용과 AI 도구의 라이선스 비용까지 그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어떨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같은 시기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이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이는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AI 산출물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과 △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GAI 활용 저작물을 구분하고, "후자만 등록할 수 있되 그 효력은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정리했다. 특히 영상의 경우 AI가 생성한 클립을 단순히 배열·편집한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전환·색채·음향 등을 인간이 직접 설계·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법원의 판단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인간 저작자' 요건이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AI를 단독 저작자로 기재한 작품의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문화청은 2024년 프롬프트의 구체성, 생성·수정의 시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인간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한 보호 규정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각국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그에 대한 '입증'에 있다. 중국 판결 역시 AI 결과물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인간의 기여를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라면 기획안, 프롬프트, 수정 이력 등 창작 과정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는 등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교섭의 문 연 국회, 문 너머도 살펴야



기자 수첩
박 경 수
〈정치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노동법도 그렇다. 다만 그 효력은 일터에서 증명된다. 법조문에 담긴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노사의 논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입법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었던 두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계한 '장식적·형식적 법률', 그리고 이용석 노무사가 강조한 '현장의 목소리'다. 두 사람이 짚은 지점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노동법은 실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어려움을 겪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노사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개별 일터의 사정을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엔 어렵다.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왜 노사는 책임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하는지를 살펴야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교섭의 문이 열린 이후까지 살펴야 한다. 노사가 실제로 마주 앉을 수 있는지,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합의가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시각과, 법의 불명확성이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맞선다. 그러나 어느 쪽의 평가든 현장을 확인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안착 과정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하고, 혼선이 문제라면 어디서 비롯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법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넘기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입법 취지가 실현되는 부분은 살리고, 권리 행사와 책임 이행을 가로막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경험이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교섭과 이행 과정에서 쌓인 질문을 다시 입법 논의로 가져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좋은 법은 통과된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고쳐 나갈 때 비로소 일하는 사람들의 법이 된다.

의견을 듣는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기 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는 일터를 비우기 어렵다. 이들에게 토론회 참석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작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충분히 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의견 수렴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입법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

/gws032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 (음 10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60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72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84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 **49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61년생** 무리한 소망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73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85년생** 부지런히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62년생** 주위의 얇은 말 듣고 꺾이지 마세요. **7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8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나겠습니다.

토끼 **51년생**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63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75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용 **5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세요. **64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76년생** 동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행동하세요.

뱀 **53년생** 건강에 무리 있겠습니다. **65년생** 관제 구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77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8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말 **5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6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8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90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양 **55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67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습니다. **91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원숭이 **56년생**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8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0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92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닭 **57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69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81년생** 정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93년생** 몸이 외지에서 노니 돌아갈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개 **58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70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82년생**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의기소침했던 귀하는 의기양양합니다. **94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71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83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95년생**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관문착적

전쟁에서 적을 공격할 때 도망갈 길을 열어 놓으면 안 된다. 적이 흩어지고 다른 곳에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다. 반대로 적이 빠져나갈 길을 차단하고 사방을 포위하면 움직일 공간을 잃는다. 그때 공격해야 적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다. 성이나 진지에 들어간 뒤 보급로와 퇴각로가 끊기면 군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진다. 싸움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도망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전투의 결과를 바꾼다. 36계 병법에는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관문착적關門捉賊 계책이 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문을 닫고 도적을 잡는다'는 뜻이다. 문을 닫아 도망갈 길을 막은 뒤 차분하게 도적을 잡는 전략이다. 관문착적의 핵심은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적을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을 통제하는 계책이다.

재테크에서도 관문착적은 중요한 원칙이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좋은 투자처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손실을 만드는 습관을 차단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기분 내키는 대로 투자하거나, 빚내서 또는 헛된 소문을 믿고 투자한다. 승산이 없는 투자에도 무리하게 돈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손실이 생기는 문, 즉 돈이 빠져나갈 문부터 닫아야 돈이 모인다. 관문착적의 지혜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유용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어떤 문을 열어야 더 나을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낸다. 필요 없는 문을 없애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가능성만 남기는 것이다. 때로는 불필요한 선택이나 손실을 만드는 습관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달려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다른 방향의 문을 모두 닫아버릴 때 승부가 결정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8	7	6
			9			4	3	
								1
		4					2	3
5			8		1			9
6	1					5		
1								
	2	7			5			
3	6	5		8			9	

8	9	4	3		7	2		
7			8		5			6
						7		
	4				2		6	
5								2
	8		9				4	
		1						
9			5		3			4
		3	4		1	5	7	9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